

6·4 지방선거 표밭 점검

무소속 現군수에 새정치 후보 도전

곡성군수

6·4 곡성군수 선거에는 현 전남도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유근기 후보, 현 군수인 무소속 허남석 후보, 현 전남도교육위원인 무소속 배병채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재선 도전에 나선 허 후보는 “지난 4년 더 큰 곡성으로 도약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놓았다”며 “민선 6기는 5기보다 폭넓은 소득 창출, 더 행복한 삶을 만들고 더 높은 복지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고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군민이 주인되는 소통행정,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실용행정을 펼치겠다”며 ▲억대농 500농가 육성 ▲500만 관광시대 개막 ▲공영버스제 도입 ▲기차마을특구관리공단 창설 ▲마을기업 30개 육성 등을 공약했다.

유 후보는 우선 조형래 전 군수, 조상래 군의원 등과 후보단일화에서 단일후보가 됐다. 이어 허 후보가 중앙당의 공천배제에 반발, 탈당하자 자연스럽게 공천장을 받았다.

지난 25년 동안 지역에서 봉사하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현안과 지역민의 고충을 가장 잘 파악한다고 자부하는 유 후보는 매일 군수실을 두번 개방하기로 하는 등 두드러지고 따뜻한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유 후보는 “찾아오는 관광 곡성과 살고 싶은 곡성을 위해 휴양과 요양이 잘 조화된 곡성을 디자인하겠다”며 ▲아시아의 디즈니랜드화 사업 선진강 동화마을 프로젝트를 ▲무로버스, 호도택시 실현 ▲전남대병원 분원 유치 ▲농번기철 점심식사 지원 ▲군수 관사 매각 등을 공약

■곡성군수 후보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무소속
이름	유근기(51)	허남석(58)	배병채(65)
경력	전남도의원	곡성군수	전남도교육위원
주요 공약	·아시아의 디즈니랜드화 사업 선진강 동화마을 프로젝트 ·무로버스, 호도택시 실현 ·전남대병원 분원 유치	·16억원이던 농산물직거래 실적 4년 동안 154억원 달성 ·26농가 억대농가 173농가로 늘림 ·곡성 관광객 400만 돌파	·마을형 사회적기업 설립 자재단 운영 ·전남도민체전 유치 ·버스노선 확대 및 인근도시 환승제 시행

곡성읍권-석곡·옥과권 소지역주의 발현 변수

허후보 불법 여론조사 과태료 부과 파장도 관심

으로 제시했다.

40여년동안 초등학교 교사에서 교장·교육장·교육위원까지 지낸 교육행정전문가인 배 후보는 “이곳저곳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소신 있게 오직 군민만 보고 군민 편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며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농민이 잘 사는 곡성, 일자리가 넘치는 곡성, 활짝 웃는 곡성을 만들겠다”며 ▲마을형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단 운영 ▲전남도민체전 유치 ▲버스노선 확대 및 인근도시 환승제 시행 ▲선진국형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유·배 후보는 경찰간부 출신인 허 후보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문제 제기를 하며 쟁점을 시도하고 있다. 유 후보는 “곡성에는 불통·호통·고통 등 3통만 있다고 한다”며, 배

후보는 “곡성을 이끌어갈 수장은 권위형 지도자가 아닌 낮은 자세로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군민을 잘 섬겨야 한다”며 각각 허 후보를 간접 겨냥했다. 이에 허 후보 측은 “허 후보의 강점은 강력하면서도 세심한 리더십”이라고 맞섰다.

변수는 소지역주의의 발현 여부다. 곡성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제1선거구인 곡성읍권과 제2선거구인 석곡·옥과권으로 나뉜다. 유 후보는 1선거구, 허·배 후보는 2선거구 출신이어서 소지역주의가 나타날 경우 표를 나누어진 후보가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곡성선관위의 허 후보에 대한 불법여론조사에 따른 과태료 750만원 부과 문제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곡성=김계중기자 kkim@

現군수 3선이나 前군수 탈환이나

구례군수

■구례군수 후보

구례는 인구 2만7000여명의 소규모 군으로 선거 때마다 군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감이 흐르고 갈등 분위기가 조성된다. 특히 이번 선거로 현 서기동 군수와 전경태 전 군수의 4번째 대결이 이뤄지면서 군은 반토막나듯한 분위기다. 이는 민선 2·3기, 4·5기를 각각 전·후 후보가 8년씩 군정을 맡아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역시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서 후보의 3선 성공 여부다. 앞선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서 후보는 전 후보에 모두 700여표 차로 이겼다.

따라서 이번에도 두 후보 간 박빙의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도의원인 정정섭 후보, 구례군의원인 김종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경쟁에 가세했다.

구례는 구례읍권과 나머지 면권으로 여론이 나뉘는 성향이 있다. 그런데 전·김 후보는 구례읍권, 서·정 후보는 면권이어서 표면적으로는 소지역주의가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 후보가 양강인 전·서 후보의 표를 얼마나 잠식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도 있다.

여기에 서 후보에 대한 3선 연임 거부감과 전 후보의 강한 성격에 대한 반감 중 어느 것이 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또 서 후보와 경선에서 패배한 박인환 전 전남도의회 의장의 전 후보 지지 선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현 군수인 서 후보는 양방 자연드림파크 조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해던 인구를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시켰고 지난 2005년 지방재정운영 평가 최하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이름	서기동(64)	김종영(56)	정정섭(50)	전경태(66)
경력	구례군수	군의원	전남도의원	전 구례군수
주요 공약	·양방농공단지 2단지 조성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화양사면역 재개발사업 추진	·지리산 생태관광특구 조성 ·구례 6차산업지원센터 건립 ·군민복지기금 100억 조성 ·군민대통합위원회 설치	·기이차 가족형 레저스포츠수련장 유치 ·100억원 배내장 수습배양보조기 지원하는 '어르신 100원 사랑제' 실시 ·서울에 구례학사 건립	·100억원 배내장 수습배양보조기 지원하는 '어르신 100원 사랑제' 실시 ·서울에 구례학사 건립

4번째 박빙 대결...무소속 2명도 경쟁 가세

지리산 케이블카·장수지원금 등 공약 제시

위 등급에서 2012년에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했다. 그는 “구례의 미래를 결정할 대형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3선에 도전했다. 공약으로는 ▲양방농공단지 2단지 조성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화양사면역 재개발사업 추진 ▲국악테마파크 조성 ▲웰빙 우리밀 식품소재산업 특구 조성 등을 내세웠다.

무소속 전 후보는 “구례의 10~20년 후 장기비전이 필요하다”며 ▲어르신 일자리 수당 45만원과 85세부터 장수지원금 제공 ▲100원에 배내장 수습배양하는 '어르신 100원 사랑제' 실시 ▲서울에 구례학사 건립 ▲인재육성기금 150억원 조성 등을 공약했다.

정정섭 후보는 젊은 시절부터 농민운동에 몸담아 온 '농민후보'로 통한다. 그

는 “지역민이 바라는 길, 구례를 바꾸라는 간절한 열망을 앞장서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으로는 ▲기이차 가족형 레저스포츠 수련장 유치 ▲군민복지기금 100억 조성 ▲군민대통합위원회 설치 ▲화양사·천은사 입장료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재선 군의원인 김종영 후보는 “불신과 분열로 나뉜 구례를 탕평의 정신으로 화합시켜 반목과 질시가 아닌 화합과 배려의 상생 지역문화를 창조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공약으로 ▲지리산 생태관광특구 조성 ▲구례 6차산업지원센터 건립 ▲군민 참여 예산제 ▲구례읍, 산동면 상설 및 재래시장 활성화 ▲농축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업무를 지원하는 농축산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구례=이성규기자 lsg@

현의원 불출마 '무주공산'...새정치·진보당 맞대결

도의원

곡성군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1곳으로 지역구를 통해 선출하는 전남도 의원은 단 1명뿐이다.

이곳은 현역 정환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다. 곡성도정공장 대표인 조상래 곡성군의회는 애초 곡성군수 선거에 뜻을 뒀으나 유근기 후보 등과 단일화 과정에서 도의원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조 후보는 이어 재선 군의원인

이상철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놓고 경선을 펼쳐 50.91% 대 49.09%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했다.

조 후보는 지난 1998년 무소속으로 군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어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도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됐으며 2010년엔 민주당 소속으로 군의원에 하향 지원해 당선됐다.

이에 맞서는 또다른 입지자는 김선동 의원의 곡성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통합

■곡성 도의원 후보

이름	(나이·정당·경력)
조상래	(56·민·전 전남도의원)
정홍균	(44·진·곡성군4·H연합회 수석부회장)

진보당 소속의 정홍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 교육위원이다. 그는 곡성군4·H연합회 수석부회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지난 1998년엔 무소속으로 군의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새정치 前 도의원·무소속 前 군의원, 빈자리 놓고 결전

도의원

구례 도의원 선거구는 1곳으로 1명만 선출한다. 현역 정정섭 도의원의 군수 선거 출마로 인해 빈 자리에 새정치민주연합 고택은 전 도의원과 무소속 이창호 전 구례군의회원이 결전을 펼친다.

고 후보는 이현장 섬진강환경 어족보존회장과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앞선 8대 도의원을 역임했던 고 후보는 지난 2010년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무소속으로 나선 정정섭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그는 “구례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 봉사하고 구례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친근한 이웃 같은 도의원이 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군의원 시절 구례 양방단지 내 아이러스팅 유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농촌지역인 구례의 특성을 잘 살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관광특구인 구례에 관광객을

■구례 도의원 후보

이름	(나이·정당·경력)
고택은	(56·민·전 전남도의원)
이창호	(50·무·전 구례군의원)

유치해 확고한 특구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면서 “친환경 축산 조사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FTA 등 농축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저가 LTE 기본료

LTE29 요금제 출시

휴대폰은 최신 LTE 폰으로! 통신비는 국내 최저가 LTE 요금제로!

추천요금제

기본료 (VAT포함)

29,000원 (31,900원)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약정할인
60분	200건	500MB	6,000원 (6,600원)

최신단말기

Samsung GALAXY S5 LG G Pro2 VEGA시크릿UP



삼성 갤럭시 S5 LG G Pro2 팬택 베가시크릿업

100% 가입 선물

티빙 실시간 TV 무제한 1년 이용권 100% 증정 (~2014.12.31 이전 가입고객 대상)

*"실시간 TV 무제한 이용권"은 모바일+PC+태블릿에서 180개 TV 채널을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티빙의 상용입니다.

대한민국 1등 알뜰폰 헬로모바일 www.cjhello.com 가입문의 1855-4949